

2023년 1월 29일

새롭게 출발하는 달
선교 주일
선교 주간

건강한 믿음(신앙)의 성장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누기복음 17:20-21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양 / “부흥” (이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박진성 집사, 오정은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가 348장)
서약과 축복	신랑: Nathan Plein / 신부: 김영은
삶과 세상으로	* 찬 송 / 559장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통일찬송가 305장)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예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베드로후서 2:1-10

하나님의 아름다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월 “새롭게 출발하는 달” / 2월 “기도의 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2023 주제 말씀 :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2023 표어 : 성장하는 교회

1. **선교주일**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2. **서약과 축복** 김영은 양과 Nathan Plein 군의 성혼서약을 예배시간에 가집니다. 축하합니다. (김훈태/신실 집사의 장녀)
3. **화요 성경공부(8:30pm zoom)** 새롭게 시작한 성경공부에 참여합시다. (주제: 가스펠 프로젝트, 인도: 김윤경 사모)
Zoom ID 456 973 3245 / PW 1234567

▶ 1-2월의 사역

선교 주일(29)

선교 주간(29-2/4)

만남/나눔 주간(2/5-11)

성장/성숙 주간(2/12-18)

소금/빛 주간(2/19-25)

- 사역팀 구성

예배/관리:

김훈태 구은강 유덕하 이광호 이진아

행정/교우:

유동숙 박진성 유병하 김신실 이소영

선교/교육:

최내권 오정은 구 민 유명원 이종세

최선운

재 정: 구 민 오정은



- 1월 생일축하 -

- 성경공부 안내

1. 주일 오전 11:00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2. 주일 저녁 8:00 - 인물 성경공부
3. 화요일 오전 10:00 - 교회 성장
4. 화요일 저녁 8:30 (Zoom) -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 개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 누가복음 17: 20-21

예수님의 초림으로 권능으로 완성돼 가는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

세상의 경험과 기준을 넘어선 곳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임하고 선포되어 전파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 요약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 누가복음 17: 20-21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답하셨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을까? 눈앞에 성취되는 예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이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임한다. 그 나라는 정해진 형태를 가지고 나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사역하는 곳,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성도가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던 바리새인처럼 인본주의에 닫혀 있는 지성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인정하게 될 것이다. 밀가루 반죽에서는 안 보이던 누룩은 점차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 실체가 확인되지 않던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선포되었고, 교회와 성도의 사역을 통해 전파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성된다.

당신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삶에서 체험하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되묻던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야 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죄와 관련해서 실천해야 할 것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싸우는게 아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 롬 6:12,13

죄와 싸우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면서 세 번에 걸친 부정적인 명령어가 나온다.
'못하게 하여.'
'순종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이렇게 삼중으로 명령하며 강조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죄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라. 성도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목사가 성적인 문제로 한순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잇을만 하면 터지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신뢰받던 목회자가 금전 문제에 연루되어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우리가 큐티를 왜 하는가?
말씀은 왜 읽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려고 묵상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저질러 부끄러운 자리에 빠진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사건을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기도제목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 히 12:4
당시 로마의 검투사들은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웠다. 피 흘릴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의 각오로 싸워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나는 망한다. 나는 죽는다. 내 영혼은 끝장이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피 흘리기까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리해야 하지 않을까? 교회 안으로 세속화가 물밀듯 밀려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조금 해보고 '안 된다. 다른 사람도 다 죄짓는데 나라고 별수 있나?'라고 하면 안 된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

여기에 대조되는 두 인물이 바울과 삼손이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엄청난 사명을 부여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바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한 대표적인 인물이고, 삼손은 그 사명을 잊어버린 부끄러운 인물의 상징이다.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 딤후 4:7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것 아닌가? 피 흘리기까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다는 이야기 아닌가?

여기에 반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진 존재로 부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죄에 대해 민감함이 없어서 넘어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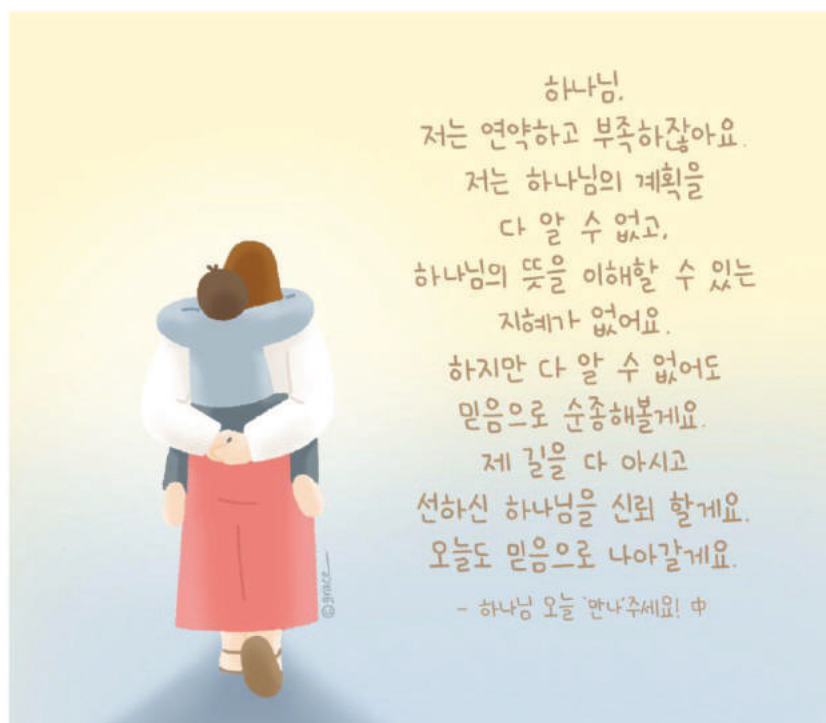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의 물결로 넘실거린다 해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는다.

우리가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바울처럼 당당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의 눈물의 고백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 빌 2:12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 앞에만 서면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찬수, 『오늘, 새롭게 살 수 있는 이유』



기도제목

1. 2023년 모든 교우가 성경읽기와 성경공부에 열심을 내도록
2. 2023년 교회 사역이 사랑과 헌신으로 열매를 맺도록
3. 다시 시작하는 Oikos 모임이 활성화되고 나눔과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4.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혜영)와 그 가정을 위해
5.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자녀들(강현, 민성, 준하)의 학업과 신앙성장을 위해
6. 장성한 자녀들의 직장 생활과 타지에서의 안전,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7. Youth 사역자 Jacob 전도사님과 New Life Church와의 joint ministry를 위해
8. 각 가정의 화목과 건강,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9.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가정과 경제적 회복을 위해
10. 다음 달 결혼하는 김영은양의 결혼준비와 그 가정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 1월 22일 / 최내권 집사
1월 29일 / 최선운 집사
2월 5일 / 구 민 집사
2월 12일 / 박진성 집사

주일헌금위원 - 1월 22일 & 29일 / 오정은 집사
박진성 집사
2월 5일 & 12일 / 유동숙 집사
김훈태 집사

주일친교봉사 - 1월 22일 / 구 민-구은강 집사 가정
1월 29일 / 김훈태-김신실 집사 가정
2월 5일 / 교회
2월 12일 / 교회

주일안내위원 - 1월 / 최내권 집사
2월 / 구 민 집사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태영 전도사
(JACOB KIM)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8:0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TUES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